고대국가 '마한' 생활상 전시·체험 공간, 광주에 문 연다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12월8일 개관

농경문화·수렵채취 등 체험 공간 다양

고대국가인 마한의 생활상을 엿보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이 광주에 문을 연다.

광주시는 다음 달 8일 신창동 국가사적지 내 마한유적체험관을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120억 원이 투입된 연면적 2259㎡ 규모의 마한유적체험관은 지상 1층 2개동 건물로, 상설전시실·교육실·세미나실·로비와 휴게 공간 등으로 채워졌다.

전시실은 사적지에서 발견된 유구를 그대로 표현하는 전시연출과 첨단미디어 기법을 적용, 신창동에서 생활했던 조상의 마한시대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고대국가인 마한의 역사와 농경의례를 체험하고, 고대 농기구를 활용한 벼농사와 고고학 발굴 체험·첨단 전시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등 고대문화를 이해하는 학습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 곳에서는 당시 농경문화 체험은 물론 수렵채취를 위한 활쏘기·토기 복원·어구를 이용한 물고기 잡이 체험 등 다양한 마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신창동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 말부터 원삼국 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과 생활·무덤 등 마한 사람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대한 복합농경유적이자 저습지 유적으로, 학술·문화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돼 1992년 9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75호로 지정됐다.

특히 최고(最古)의 현악기인 '슬', 베를 촘촘하게 짜는 도구인 '바디', 직경 160㎝ 추정의 수레바퀴, 신발을 만드는 틀인 '신발골', 각종 칠기, 목기와 토기, 검 등이 출토되는가 하면 동북아 최대의 벼 생산 압착층이 발견됐다.

신창동 유적은 1962년 옹관묘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크고 작은 규모의 조사가 이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험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특히 학생들이 선조들의 소중한 역사를 배우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광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조감도. (조감도 = 광주시 제공)

전남 이미용 산업 신규 해외시장서 인기몰이

두바이 화장품 미용 전시회서 6개 기업 302만달러 수출상담

전남도는 최근 두바이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화장품 미용 전시회'에 참가해 302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벌이는 등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27회째를 맞는 두바이 화장품 미용 전시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규모가 큰 국제 뷰티 전문 전시회로 25개 국 수출기업과 138개 국 바이어가 참가했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도내 이미용 수출기업 6개사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록바이오텍은 천연 한방원료 화장품, (주)메사코사는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브이케이프론티어(주)는 친환경 비건 화장품을 각각 출품했다. (유)호인은 네일파츠 제품과 젤네일, (주)비더블유코리아는 탈모예방 기기와 샴푸, (주)인코돈바이오코스메틱은 피부트러블 개선 화장품을 출품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전남도는 참가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박람회 기간 중 바이어를 기업 부스로 초청해 1대1 수출상담을 지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내 성격에 맞는 전남 청정 힐링 여행코스는?"

전남도 '여행취향 플래너' 제작 배포…인스타그램 소문내기 이벤트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엠지(MZ)세대의 성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취향 플래너'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행취향 플래너'는 성격유형 테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여행 취향을 선택하면 이를 분석해 전남 여행코스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여행 관련 13개 질문 문항과 개인 취향을 나타내는 16개 캐릭터, 32개 여행코스로 구성됐다. 추천 여행코스에 필요한 인근 먹거리, 숙박시설 등 관광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엠지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남도여행 만들기 공모'를 통해 발굴된 300여 건의 여행계획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제작됐다.

전남 관광재단 누리집 홍보 배너로 접속하거나 인터넷 창에 http://diynamdo.kr/을 입력해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여행취향 플래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문내기 이벤트'를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

테스트 참여 결과를 인스타그램에 필수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면 된다. '좋아요'가 많은 게시물을 선정해 전남 소재 호텔 숙박권과 음료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에 발맞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엠지세대들에게 전남의 관광지, 음식,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개인 성향이 반영된 전남 여행코스 추천을 받아 즐거운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대표음식 한자리에' 광주 맛 페스타 열린다

18일~20일 주류페스타와 동시 개최

광주시는 미향 광주의 다양하고 우수한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 광주 맛(味) 페스타를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관한다.

광주 대표음식 7미 이 외에도 지역의 백년가게·청년소상공인·유명 맛집·디저트가게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한다. 광주 대표음식 7미는 광주오리탕·송정리향토떡갈비·광주계절한식·광주육전·무등산보리밥·상추튀김·광주주먹밥이다.

호남 최초의 주류박람회인 2022 광주 주류페스타와 동시에 열린다.

광주 대표음식과 광주 주류페스타에서 입상한 전통주의 페어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식을 제공한다. 스타 셰프 오세득과 함께 하는 요리 콘서트를 마련, 제철 음식을 활용해 만든 광주 계절 한식과 연말 홈파티를 위한 퓨전 한식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맛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케이크 만들기·주먹밥 만들기·페이퍼토이·아트식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광주 최고의 셰프를 가리는 요리경연대회, 빵·설탕공예 수상 작품을 전시하는 제과제빵관, 버스킹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행사의 메인 부스인 광주 맛 홍보전시관에서는 광주 대표음식과 향토음식을 실물과 사진·영상 작품으로 전시하고 지역의 전통을 자랑하는 백년가게·광주 주먹밥 상품과 캐릭터도 소개, 광주 음식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관람객들에게 홍보한다.

서선옥 기자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2 느단 400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윤정효 (780925-1573115)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참판로 66-1, 202호(풍향동)

위 망 윤정효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11월 9일

공 고 인 : 1.윤희선, 2. 윤희원, 3. 윤준호
(청구인 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강유미)
주 소 : 광주 북구 하서로229번길 57, 102동 307호
(양산동, 양산주공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11월 3일
공 고 기 간 : 2022. 11. 9 ~ 2023. 1. 9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